

믿음과 창작은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다

홍순모 (조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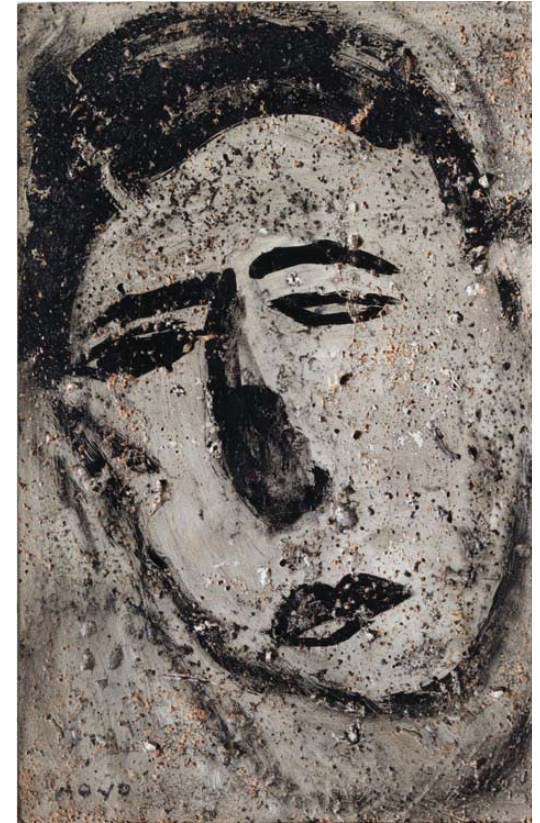


나의 작품 주제는 인간이고, 소재는 인체이다. 나는 길가나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몸짓과 표정, 때로는 공중목욕탕 안에서 벌거벗은 인체의 속살과 민낯까지도 끊임없이 관찰한다. 뿐만 아니라 앞 세대 선조들의 빛바랜 사진 속에서 그들의 삶의 흔적과 주변 풍광에도 몰입한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옹해된 시대의 체취를 찾아낸다.

인간을 형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는 인체를 선택한다. 이때 인체는 무엇인가라고 기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체가 무엇이 될까 하고 조형적으로 생각한다. 인체를 조형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지를 사고하는 것이다. 재해석된 인체는 형태가 되고 형태는 다시 조형이 된다. 조형화된 인체 형태는 이미지이다. 이미지는 인체라는 물성을 떠난 형상화된 조형언어이다.

조형언어에 나는 아우라를 담으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아우라는 예술 형식의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아우라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깨닫는 것이다. 즉, 아우라는 해독(解讀)하는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해독(解得)되는 보이지 않는 이미지이다. 해독의 조형정신인 아우라는 예술의 정신세계에서 지속되어 온 시·공간을 뛰어넘는 예술의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다. 나의 창작 방향은 아우라를 통한 시대정신의 구현이다.

나는 창작을 통해서 예술적 가치의 본질을 배웠고, 이 가치의 근원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주 만물의 질서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았다. 창조 질서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中庸적 절대 가치이다. 예술의 중용은 내용적 형식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고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조형적 조화



와 질서에 있다. 그러기에 예술의 조형질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와 맞닿아 있다는 원리를 확인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인간의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그리고 영적세계라는 유기적 순환 고리가 있다. 나는 이와 같은 것을 성경적·예술적 관점으로 대비시켜 묵상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창조적 개념과 의미, 이를 통한 작가인 크리스천의 믿음과 창작에 관한 평가와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찰한다. 창조질서라는 개념에서 볼 때 과학자들이 기존의 물질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어 물질문명을 만들어내듯이 예술가들은 캔버스와 물감, 붓이라는 물질을 수단으로 정신문화인 예술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흙이라는 물질로 인간의 육체를 만들고 그 고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영혼)을 만들었듯이.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과학자, 예술가에게 창조적 능력과 이를 구사할 수 있는 은혜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창조의 속성에는 과학자가 만든 물질세계의 유한성, 예술가가 구축한 정신세계의 무한성,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시공(時空)의 차이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작가인 크리스천은 믿음과 창작이라는 동반자적인 삶의 궤적에서 볼 때 평가의 대상이 된다. 크리스천으로는 믿음으로 평가받고 작가로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믿음과 창작의 평가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세상과 같이 상대적으로 비교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고 절대적 사랑의 주체로 삼는다. 미술에서도 원시미술이나 아프리카 미술은 피카소와 같은 대가의 작품과 우열의 차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피카소가 그들의 작품에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았을 정도이다.

믿음과 창작은 양(量)이 아닌 질(質)로 평가를 받는다. 양이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믿음과 창작은 내용의 질로 평가를 받는다.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 같은 헌금이나 백부장의 믿음이 이와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평가로 인하여 도예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은 미련 없이 깨버리듯이 대부분의 예술가들도 마음에 드는 작품을 기대하며 작품이 나올 때까지 수 없이 다시 제작한다. 이 같은 제작으로 나온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피카소의 '게르니카' 등이다. 이러한 걸작들은 작가의 명예를 지킨다. 좋은 작품은 장점이 많은 작품이기에 앞서 역사적으로 단점이 없는 작품이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선행이 아닌 죄의 유무로 기준 삼듯이, 믿음과 창작의 평가는 결과보다 과정에 둔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목표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믿음의 목표는 결과가 아니다. 목표는 방향이고, 방향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창작의 목표도 동일하다. '예술가는 평생 다듬는다.'라는 말이 있다. 예술가는 작품을 평생 다듬는다. 크리스천도 믿음을 평생 다듬는다. 이것이 작가인 크리스천의 삶의 여정이고 과정이다. 좋은 과정은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 그것은 순수함과 가난한 마음과 열정이다. 그러므로 작가인 크리스천의 삶은 믿음과 창작이 분리 될 수 없는 혼합적의 융합적 관계이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인문학 교수인 헤럴드 블룸은 "문학 비평은 이론적이라기보다 경험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다시 이렇게 재해석하고 싶다. "믿음과 창작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 실천이어야 하고,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어야 한다." 이것이 작가인 크리스천으로서의 나의 삶의 목표이며 자세이다.



홍순모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는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교환교수를 했으며 가나화랑 전속작가로 있다. 한국, 프랑스, 인도, 중국, 러시아 등에서 개인전과 비엔날레(biennale)등 국제전에 참가했다. 그리고 한국의 월간 미술, 공간 등의 미술전문 잡지 등에서 미술대학교수, 미술비평가, 작가 등이 뽑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여러 번 추천되었고, 시공사에서 홍순모 개인화집이 출간되었다. KBS TV에서 '스승과 제자' 라는 프로에 60분간 특집으로 스승인 최중대(예술원 회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홍순모의 작품세계가 소개되었다. 또한 중국정부에서 격월간으로 출판되는 "조소" 미술전문 잡지에 특집으로 홍순모의 작품세계가 실렸다.